

“청소년 교화 앞장” 부산시 교사불자회 1등



부산시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 1주년 기념법회가 10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도법사 해송 김모사 주지,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과 호원등 3백여명이 등장한 이날 법회에서 양원식 회장은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불자들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는 모임으로 재출발하자”고 말했다.

초청법사 박완일 교수는 “회원 각자가 부처님의 원력으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병원불자회 창립

한일병원불자회는 23일 오후 7시 병원 내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불자 의료진과 행정직 사무원을 비롯 한전반야회, 각 병원불자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포교사 직장직능불자회 이끈다



전문포교사의 활동은 각 분야별 불교회를 특성화·전문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사단 전문화교육 장면.

26개팀중 10개팀 활동나서

불자회 창립·연대모임 유도

조계종 포교사단이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직능포교 전문화교육을 받은 포교사들이 직장직능 불교신앙단체 활성화를 위한 청병으로 나설 전망이다. 시대를 모으고 있다.

26개팀 3백여 명으로 구성된 포교사단 중 포교 4분야에 속하는 직장직능포교팀은 군포교 7개팀, 경찰포교 1개팀, 교도소 포교 1개팀, 직장포교 1개 팀으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10개 팀에 걸쳐 다수의 포교사들이 포진, 전문 포교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경찰포교팀(팀장 김진홍)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구로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 관악경찰서 등 서울지역 7개 경찰서 불자회를 결성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등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직장포교팀은 20여 년 전 구청내 첫 불자회를 창립해 이듬해 집중시켰던 조정봉씨(서울시 노숙 자대책임)를 팀장으로 서울시청 불자회를 비롯한

서울 시·구청 불자회를 연합하고 지원, 포교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군 포교팀과 교도소 포교팀도 다각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포교원 주최로 열린 릴레이강좌와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전문화 교육을 받은 직장직능포교팀은 포교사들이 그동안 직장직능불교신앙단체의 지도법사로서 친견 일몰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불자회 창립을 돕거나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 직장직능포교 활성화를 물론 직장직능불자회 조직구도를 직접 그려나갈 예정이다.

또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포교사들이 직능별로 팀워크(team work)를 구성, 정보를 교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개별적인 활동에 익숙해 있던 포교사들이 팀의 일원으로서 팀 활동에 얼마나 솔선수범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경찰포교팀 현재 포교사는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포교현장에 전문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사들이 배치돼 직장직능불자회를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진각종 해탈절 기념불사 봉행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우란분절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탑주심인당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심인당에서 해탈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해탈절 불사는 (우란분경)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의 정성으로 우란분을 지어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 수행의 자세를 바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2500만원 전달

극락암(주지 명경)은 10일 경봉스님 열반 17주기를 맞아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봉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89년 설립된 경봉장학회는 보광선원, 극락선원, 해외유학 스님, 통도사 승가대, 동국대 등 37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는 원로의원 중산스님,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총회 사무처장 영배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아침을 여는 집’ 실상사서 실직자 수련

경북권 산하 노숙자 수용시설 ‘아침을 여는 집’은 7일~10일까지 실상사에서 실직자를 위한 ‘참 나를 찾아서’라는 수행프로그램을 열었다. 10여 명의 실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3박4일간 고된 농사일과 농약과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명 농업’을 배우며 그동안 동떨어져 있던 삶의 의미를 일깨웠다.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의 법문도 있었다.



삼화불교대학 하기방학 수련회

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스님)은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안성 서광사에서 삼화가족을 위한 하기방학 수련대회를 가졌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대회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불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와 <금강경> 사경, 참선정진, 캠프화이어 등으로 진행됐다. 혜인스님은 “원생들에게 심신을 다스리고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금융단 조계사서 철야정진



전국금융단불교회(회장 김운하) 수련회가 10일~11일 양일간 조계사에서 열렸다. 전국 9개 은행과 농·수협, 증권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불자회가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입재식에 이어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의 천수경강의, 108배 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 독송, 예불, 수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김운하 회장은 “IMF국면이 어느 정도 수습되긴 했지만 금융가엔 아직도 세월이 수습한 실정이다”며 “도심의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철야정진을 통해 불자금용인들이 심신을 여유롭게 하고 신심을 다져 업무에 충실하고 동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계사 지홍스님(조계사 부주지)은 연비를 하기에 앞서 “불자가 지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 계다”고 말하고 “계를 받아 지는 것 못지 않게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의미가 크고 복덕의 씨앗이 된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02)398-6464

도필선 기자



한국은행불자회 사경법회

“주목같은 경전내용을 몸소 써서 지니는 공덕을 느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안구용)가 9일 본관 시청각실에서 1시간여동안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해 사경법회를 가졌다. 20여명의 회원들은 <반야심경>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며 바쁜 업무에 지친 심신을 가다듬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탐방 동야대학병원 연불회



동야대학병원 연불회가 지난 5월 화엄사에서 법회를 갖는 모습.

사찰서 무료진료 ‘자비행’

1993년 창립...회원 80명

매월 환자들과 함께 법회

병원불자회로서는 드물게 사찰과 연계 무료진료봉사를 벌이는 모임이 있다. 동야대학병원 연불회(부회장 박옥규)는 8월1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스님, 직원은 물론 그곳을 찾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벌인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계획 중이다.

93년 4월 창립때만 해도 이런 대규모 봉사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회원이 한명 두명 늘어나면서

현재 80여명의 회원들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아가며 큰 일도 서슴지 않는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원만히 진행될 것임을 믿기에 걱정이 없다.

연불회는 격월 사찰순례 법회와 참선수련회 등을 통해 수행을 다져오고 있다. 사찰 순례법회는 일반인들의 동참의 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월 법사를 초청, 병원 5층 대강당에서 환자와 보호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불회는 앞으로 회원 배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사찰과의 연계 의료봉사활동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 자연스럽게 회원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불회는 개인적인 수행에 충실하면서도 조직활동에 약한 불자들의 특성을 탈피, 보다 조직적인 결속력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신현원 총무간사는 “병원은 생과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불법이 더욱 질실한 곳”이라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연불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불회는 8월 사찰 의료봉사를 앞두고 의료 기기와 의약품 및 봉사인력 확보 등을 위해 눈고 뜯 새가 없어 더위도 잊을 정도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롱큰스님의 영가 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롱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제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수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수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심신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수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수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